한국 영어교육의 성찰과 발전적 대안 모색[1)]

임 병 빈
(공주대학교)

Im, Byung-Bin. (2007). A Proposal for a developmental paradigm of teaching English through a reflection of Korean English education. *Modern English Education, 8*(1), 171-190.

The history of English teaching in Korea has continued over one hundred years since its beginning in the last decade of 19th century. In the past time of "changing winds and shifting sands", what is called a cyclical paradigm (to use Kuhn's term), a series of teaching methodology have been developed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y of teaching English, societal environments, economic status, parents' attitude for English language, etc. However, there seem to have been many dilemmas in Korean English education. Thus, this paper discusses some major issues which Korean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 have faced up till now: 1) English teaching in elementary schools; 2) English textbooks for secondary schools; 3) English listening & speaking tests for preliminary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4) English teacher education, etc. Finally,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for advancing a step further toward our teaching goal of achieving fluent English communication.

Keywords: [cyclical paradigm/alternative/fluent English communication/순환적 패러다임/대안/영어 의사소통의 유창성]

1. 머리말

Howatt(1984)가 쓴 영어교육사(*A History of English Language Teaching*)에 의하면, 영어교육의 역사는 영국에서 중세영어 시기인 14세기 후반부터 비롯된다. 11세기 무렵 영국은 Norman Conquest라는 역사적 상황이 계기가 되어 불어가 공용어로서의 위세를 떨쳐오다가 영국과 프랑스의 적대적 관계, 유럽 전역에 몰아친 흑사병, Chaucer의 'Canterbury Tales'출간, 중산층 세력의 약진 등으로 인하여 영국 내에서 영어 교육의 씨앗이 발아하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로

1) 본 논문은 2005년 현대영어교육학회 여름학술대회 특별강연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

www.kci.go.kr

영어 교육이 확산되고 18세기까지 표준영어로서의 확립시기를 거쳐 19세기 말경에 이르러 문법번역식 교수방법이라는 유일한 외국어 지도방법에 대한 비판과 반동의 영향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20세기의 'Direct Method/ Audio-Lingual Method/ Designer Methods(CLL/ Suggestopedia/ Silent Way)/ CLT'라는 교수 방법론의 연속된 패러다임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한편, 우리 한국의 영어교육 역사를 간단히 요약해보자. 19세기말 영어 원어민(선교사)들이 교사로 가르치던 '신식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출발되어 '일제식민기'를 거쳐 해방과 함께 정부가 수립된 후 공교육 과정에서 영어 교과는 정규 교과목에서 비중 있는 교과로 자리를 잡고 지금의 제7차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급별/학년별로 필수 및 선택 교과로 편성되어 운영해오고 있다.

중등학교 교육에서는 제 6차 교육과정 개편 시기부터 회화 위주의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이 점차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대학교육에서도 90년대 중반부터 대학교양영어 교육에 회화위주의 영어수업(독본 교육과 Lab수업의 폐지)과 TOEFL/TOEIC 강좌로의 전환체제로 개편되었다. 뿐만 아니라 초등영어 교육도 1997년부터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상황으로는 전국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 별로 또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어 학습 캠프를 설치하여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영어 몰입학습 프로그램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변화되고 복잡한 영어교육 환경에서 우리는 비판적 성찰의 시각으로 과거와 현재를 진단해 봄과 동시에 가깝고 먼 미래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평소에 느껴왔거나 연구해 보았던 몇 가지 한국 영어 교육의 논쟁점들을 중심으로 개인적 진단을 내려 보는 동시에 문제점에 대한 발전적 대처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영어 교육의 주요 논쟁점 진단 및 대안 제시

2.1 초등학교 영어교육 보살펴야 할 때 아닌가?

1997년부터 조기 영어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초등학교 영어 수업은 교육부 고시에 의하여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등 영어교육 도입시기인 1997년 무렵에는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속에 현직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어민 보

www.kci.go.kr

조교사의 시(도)·군 교육청 배치 그리고 조기 영어 교육과 소위 '세계화' 물결을 타고 국민적 관심사로서 그 열기가 뜨거웠으나 한 두 해 지나서 국가적 금융위기 상황인 IMF 시대를 맞아 그 열기는 어느덧 따스한 온기마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식어버리고 새로운 세기를 맞아 2000년대를 넘어선 지금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단위학교 차원에서 별다른 관심과 지원이 없이 '초등 영어교육'이라는 배가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 과정인가? 모국어 습득은 저절로 된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매우 어릴 적 시기인 유아기와 아동기에 대한 우리들의 기억이 망각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능동적으로 모국어 학습에 열정과 노력을 투자했던 지를 잊고 있을 뿐이다. 그 단적인 비유는 Saint Augustine(1949)의 *The Confessions*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I, longing by cries and broken accents and various motions of my limbs to express my thoughts, that so I might have my will, and yet unable to express all that I willed …" (Slobin, 1979: 73)

우리는 모국어를 배울 때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라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 그리고 최적의 환경 속에서 모국어를 배우고 익혔으며 수면시간 등의 생리적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을 전적으로 모국어 학습에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하여 생후 4~5년 동안에 모국어 습득이 가능해진 것 아닌가?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1~2시간 교실 수업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으며 교사의 자질과 교실 수업 활동의 열악함이 가중된 상황에서의 영어 학습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초등 영어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지 않은가? 사교육 차원(학원/학습지 교육 등)에서 어린이 영어 교육 현장은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공교육인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너무도 초라하고 쓸쓸한 상황'인 것 같다. 이러한 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정부가 원래 취지대로 조기 영어교육과 국제화라는 취지를 살려서 당초보다 종합적인 대책과 예산을 마련하여 '영어전담 교사 배치 확대', '원어민 보조교사의 활용',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영어연수 프로그램 강화' 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초등영어 수업 시수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3·4학년의 주당 1시간 수업을 최소한 2시간으로 늘려야 한다. 셋째, 특별활동 시간이나 방과 후 활동을 통하여 수준별 수업(심화반/보충반) 방안을 모색

www.kci.go.kr

한다. 넷째, 중등 영어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 중에서 기간제 영어 전담교사를 대폭 선발하여 활용하고, 일정 기간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초등 영어교사로 특별 채용을 하거나 중등 임용고사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2.2 중등 영어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

대체로 약 5년을 주기로 하여 중등학교 영어교육과정이 바뀌어 왔다. 현재는 제 7차 교육과정이 진행 중이고 2009학년도부터 제 8차 교육과정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학교 교육은 일정 수의 학급규모로 편성되어진 학생들을 교사 1인이 지도하는 상황이므로 학생들의 개인별 능력을 고려하여 지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도시와 농어촌 학교, 또는 같은 도시 안에 있는 학교라도 특수목적고(외고・과학고 등)/ 인문계・실업계/ 인문계 일반학교 내에서의 우수집단이 분포된 학교와 열등집단이 분포된 학교 등 다양한 학습자 집단에게 규격화된 동질적인 교과서를 통하여 교수 학습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K시의 실업계 A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평균 영어 학력이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에도 못 미칠 수 있는데도 고교 1학년 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며, S 중학교 3학년 A반에 소속된 40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할 때, 최소한 상/중/하의 3단계 학력으로 구분되는 집단이 발생될 수 있는데도 똑같은 수준의 동일한 교과서로 학습이 될 때 교수 학습의 성과는 과연 기대될 수 있겠는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제 8차 교육과정의 영어 교과서 개발 계획은 위에서 지적된 점이 고려될 수 있는 수준별 교과서 검정(안)을 연구하여 몇 차례 공청회 과정을 거친 후 확정 발표하려 하였으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결국 제 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과서는 학년 당 1종으로 선정되었다. 다만 '학습활동 책'에서 수준별 교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6-75호, 2006. 8. 25 참조). 이와 같은 결정은 효율적인 영어학습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상급학교 입시제도', '내신 평가처리', '교사의 과중한 수업부담'등의 현실적인 장애물에 의하여 훼손되고 표류되는 상황이어서 매우 안타깝다.

2.3 수능 영어시험의 듣기 문항 난이도와 읽기 지문의 문제점은?

제 5차 교육과정이 출발되면서부터 우리나라 중등 영어교육에서 구어(듣기・말하기)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제 6・7차 교육과정을 거쳐 오면서 교과서 내용에 포함된 듣기・말하기 학습 활동 비중이 점증적으로 늘어났고

www.kci.go.kr

중・고등학생들의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중간・기말 고사에 포함되는 EBS 방송 매체를 통한 듣기 평가 시험과 대입 수능시험에서의 듣기 평가 시험 비중도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대입 수능시험에 포함된 듣기 평가 문항에서의 고득점 획득을 위해서 수험생들이 독해력 공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듣기 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바꾸어 말하면 영어 수능시험은 독해력에서 결정적으로 좌우되므로 듣기 공부에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즉, 듣기 문항이 비교적 쉬운 문제들로 출제되어 듣기 실력을 쌓기 위하여 별도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놓고 볼 때, 우리의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목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수 목표와 평가의 실제 사이에 상당한 괴리감이 발생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제 7차 영어과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교육부, 2001).

>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
>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외국어), P. 28>

위의 영어과 교육목표를 고교 교육과정에 바르게 반영하고 그에 대한 평가로서 수능시험에서 듣기 문항을 출제할 때 적절한 난이도를 반영한다면, 현실과 같은 수험생들의 듣기 학습에 관한 태도 및 공부하기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능 영어시험에서 듣기 문항의 난이도를 높여 종전과 같은 수험생의 학습 수준으로는 고득점을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유도함으로써 중등학교 학생들의 듣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수능의 읽기 평가에서도 읽기 지문의 길이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0년대 후반에 시작된「대입예비고사」시기에 읽기 지문의 길이가 비교적 길어서 200~250 단어로 구성된 하나의 지문에서 몇 개의 통합 문항이 출제되는 형식이었다가「대입학력고사」시기를 거쳐 현재의 수능시험에서는 100단어 내외의 짧은 지문에서 단일 문항 형식으로 출제되어 왔다.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면 일반적으로 지문 안에 포함된 내용의 논리적 구조가 단순하여 복합적인 추론 능력이나 종합적 이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출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고3 수준의 연령이면 이미 인지적으로 성인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는 의사소통 행위자인데도 단순한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다면 이것은 지양할 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전체 지문 중에서 몇 개의 지문은 복합적 논리구조로 꾸며진 읽기 지문을 통

www.kci.go.kr

하여 읽기 능력의 심층적 이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2.4 영어교사 연수의 효율적 방안은?

영어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교육 교과과정 편성을 위하여 먼저 영어 교사의 연수 교육 원리 또는 교사자질 요건을 살펴보자.

Nunan(1989: 112)은 교사 교육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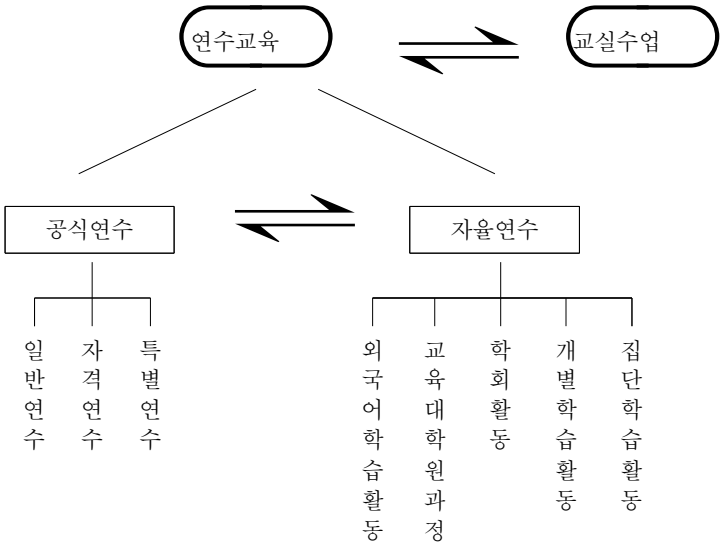
(1) The content and methodology of workshops should be perceived as being personally relevant to participants.
(2) Theory should be derived from practice.
(3) The approach should be bottom-up rather than top-down.
(4) Teachers should be involved in the structuring of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me.
(5) Teachers should be encouraged to observe, analyze, and evaluate their own teaching.
(6)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mes should provide a model for teachers of the practices they wish to encourage, i.e. they should practise what they preach.

이와 같은 원리의 기본적 입장은 교사 연수의 주체인 교사들(학습자)에게 연수의 초점을 맞춰 실제적인 교실수업에 보탬이 되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시사해 준다.

Cullen(1991)도 교실 수업 상황을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검토절차를 거쳐 학습자에게 보다 나은 교수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해 준다. 이와 아울러 Milk(1990)도 여러 가지 연구사례를 종합하여, 관행적인 연수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수대상 교사들의 경험적이고 과업 중심적인 학습활동의 유익한 면을 강조하고 있다(Merino & Faltis, 1986; Celce-Murcia, 1983; 등).

www.kci.go.kr

그림 1
통합적인 연수교육 모형과 교실수업의 관련성



따라서 연수교육의 교과과정은 마땅히 영어로써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시켜 주는 학습의 현장 기능을 해야 하는 동시에 관련 이론 강좌들도 궁극적으로는 언어사용 기능 발달에 실제적인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숙달은 단 기간 내에 짜여진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서만은 그 성과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리하여 공식적 연수과정을 통하여 제시되고 연습한 각종 과제 학습활동들을 연수 교사 스스로 자율연수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연수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그림1 참조).

영어교사의 자질 향상을 통한 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임병빈, 연준흠, 장경숙, 안희성, 2003: 13-15).

2.4.1 언어 사용 기능의 숙달 방안

(1) 원어민 화자와의 빈번한 접촉을 통하여 회화연습 실시

www.kci.go.kr

(2) 대학부설 외국어 교육원, 일반 영어회화 학원 등의 수강
(3) 멀티미디어 매체(T.V., 라디오, 컴퓨터, video 등)를 통한 회화연습
(4) 영어 교사들로 구성된 영어회화 클럽활동
(5) TOEFL, TOEIC 시험 준비 및 응시

2.4.2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

(1) 연수교사들의 필요성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과목 강좌 개설
(2) 하향식(top-down approach) 교수학습으로 부터 상향식(bottom-up approach)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습자인 연수교사들의 학습과정 활동 중심 교육
(3) 문제-해결 / 비교-대조 / 발표・토론 / 게임・역할 활동 / 등을 통한 과업 중심 활동
(4) 동료 교사의 수업활동을 참관하고 분석한 후 토의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수 방법 모색
(5) 자신의 수업사례를 video tape에 담아 사후 분석하여 보다 나은 수업 지도 방안 모색
(6) 지역사회(시・도・군별) 동료 교사들의 영어교육 workshop 활동
(7) 정기간행물(영어교육 관련) 구독 및 1개 이상의 학회 활동 의무화

2.4.3 교사 양성기관(대학)의 예비교사 교육방안

(1) 교과교육 강좌의 강화 및 내실 있는 교육실시
(2) 졸업논문 제도의 획일적 수행을 지양하고 단계적으로 TOEFL/ TOEIC시험 점수의 일정 수준 획득 방법으로 전환
(3) 학부의 교양 및 전공에서「영어회화」취득 학점 강화
(4) 학부의 교육실습 기간의 확대와 참관 수업의 기회 확충

2.5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을 통한 교실 수업 활성화 방안은?

2.5.1 학술단체 활동의 활성화

첫째, 학술단체간의 연계성을 통하여 보다 큰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영어교육 발전을 목표로 삼아 개별 단체들을 연합시킨 전체적인 학술 단체(가칭: '한국영어교육총연합회' 또는 '한국영어교육협의회')의 조직이 필요하다(표1 참조). 이를 모체로 하여 각 학술단체 상호간에 협조와 참여를 조장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전문적 실행 차원에서 영어교육의 주요 현안 및 과제들을 영역별로 설정하여 각 단체에게 연구

www.kci.go.kr

과제를 지정해주고 훌륭한 연구결과는 전체적인 학술단체 모임에서 논문 발표회와 연구논문 발간을 실시해 봄으로써 종전의 폐쇄된 개별단체 성격의 학술단체 활동에서 보다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영어교육 정책 담당자에게 정책적 개선안이나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도 병행함으로써 명실 공히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표 1
국내 영어교육 관련학회 조직일람표[2)]

학 회 명	회원수	설립연도	정기간행물명	정회원자격	국제 교류 현황
한국영어교육학회	473	1964	영어교육	석사학위이상 영어교육 종사자	미국외 5개국 학술지 배부 및 연사초청 강연
한국영어영문학회	1650	1954	영어영문학	영어영문학 전공의 교육자	미국, 일본 학술지 교환
한국응용언어학회	300	1978	응용언어학	석사학위 이상	국제 응용언어학회 (AILA)와 유대
한국영어어문 교육학회	180	1994	영어교육연구	석사학위 이상, 중등영어교사	
한국영어교육회	336	1952	영어교육	영어교사 및 교수	

(한국학술진흥재단, 1994)

둘째, 영어 교사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학술단체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 학술단체들이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학술적 측면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야 함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영어교육 현장에서 보면 일선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의하여 교육성과가 좌우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Brown(2000)이 지적하고 있는 '이론과 실제'간에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이론 또는 기술(techniques) 일지라도 그것을 현장 수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무모한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다. 따라서 대학교수와

2) 표 1의 자료는 1994년 통계이며, 현재 추가 관련 학술단체로는 팬코리아 영어교육학회, 글로벌영어교육학회, 현대영어교육학회,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등이 있음.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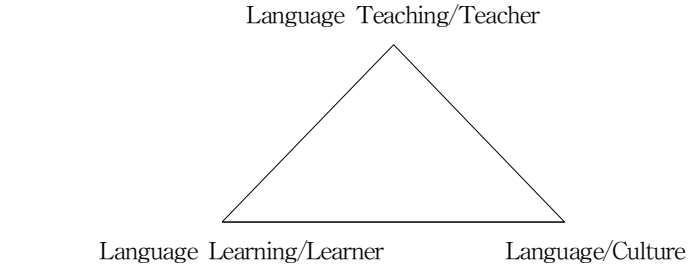
중등교사 사이에 충분한 토론과 실험적 과정을 거쳐 검증되어져야 하며, 그러한 결과 또한 교육 상황에 따라 변용되어야 할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셋째, 각종 연구결과 발표회나 발간물이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 그동안 각 학술단체들이 국내적으로 많은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있는데 이 방면의 활동을 더욱 신장시켜야 하겠다. 그리고 중등 영어교사들도 학술발표 또는 학회활동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사 연수 차원에서 일 년 중 최소 5일 이상 '연수연가' 근무 처리를 하여 연수활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장수업에 적용 가능한 '우수 연구사례' 연구물을 발췌하여 전국적인 영어교육 종사자에게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연구물을 입수할 수 있는 대책도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각 학술단체의 영문판 정기간행물을 국제적으로 배포하여 학술단체들의 국제적인 권위 신장을 높이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요청된다.

2.5.2 대학교수/ 초·중등 영어교사/ 장학담당자 사이의 협력활동

EFL 교육상황에서 교육의 기본적 원리와 방법도 일반적인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사, 학습자 그리고 교육내용(언어)의 3요소적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Larsen-Freeman(1983: 3)이 제시한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언어교육의 총체적 요소를 포괄시키면서 3요소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의 총화 속에서 교수이론과 교수방법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
언어 교육의 3요소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첫째, 지역 영어교사협의회를 모체로 하여 대학교수와 장학담당자를 포함시켜 영어교육의 현실적 문제(수업방법, 평가기술, 교수자료 활용, 언어기능별 지도방법 등)에 관하여 월별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학에서는 선정된 주제에 대하여 국내외의 이론적 동향을 소개하고 성공적으로 검증되었거나 예상되는 실험사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대하여 중등학교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경험에 비추어 현장 수업에 활용하였거나 앞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토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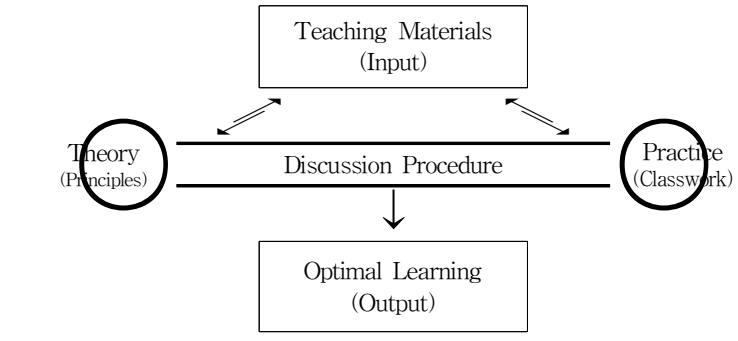
둘째, 위와 같은 토론 및 제시과정에 장학담당자가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결론을 현장 수업에 반영해 볼 수 있도록 장학측면에서의 협조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월례 세미나에 대한 주제 선정은 대학·중등교사·장학담당자 사이에 의견조정을 거쳐 확정하고 일정표를 계획하여 발표한다. 주제별로 대학의 관련 학자를 참여시키고 중등 교사 측의 토론자 또는 수업사례 보고자는 필요한 기준에 의하여 사전에 선발 참여시킨다.

넷째,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과 관련단체의 지원을 받는다.

2.5.3 교실 수업과 이론의 상호작용

그림 3
교실수업과 이론의 연계성에 의한 학습 극대화 모형



현장 수업과 이론의 연계성에 의한 영어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인 연계성의 모형을 제시해 본다. 활용시안의 구성은 다음의 그림 3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용

www.kci.go.kr

된다. 이 모형에서 보면 일체의 교수자료에 의한 교육내용은 관련되는 교수이론과 실제적인 교실의 수업과정에서 상호간에 영향을 받으면서, 여기에 토론과정(discussion procedure)통로를 설정하여 수업과 이론의 연계성을 더욱 긴밀하게 작동시킨다. 이러한 절차의 출력으로서 학습의 극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2.6 영어 독해력 교수학습의 문제점 해결 방안은?

2.6.1 독해력의 정의 및 주요 구성요소

Fitzgerald(1967)는 독서란 다양한 복합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의미에 관한 사고과정으로 정의한다. Harris(1962)는 독서란 인쇄되었거나 또는 쓰여진 언어기호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으로 본다. 또한 표2에 제시된 Harris(1962), Lamberg & Lamb(1980), Jenkinson(1973) 그리고 Mikulecky & Jeffries(1986)의 독해 관련 요소분석을 종합해볼 때, 독해력은 결국 다음의 기능들로 집약될 수 있다고 본다.

a) 읽기 속도	c)논리전개 파악	e) 어휘 습득
b) 훑어 읽기[3]	d) 통사구조 파악	f) 문화배경 및 세상지식[4]

이상의 독해 관련요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독해력이란 두 가지 근본적인 독서기능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표2 참조). 하나는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는가?'의 읽기속도와 다른 하나는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의 이해도로서 기능적인 독해력의 정의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Perfetti, 1985).

---

3) '훑어읽기'란 'skimming'과 'scanning' 개념을 포함시킨 것으로서 'skimming'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읽은 내용에 관한 개략적인 요지파악 기능을 가리키며, 'scanning'은 특정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기능을 말한다.

4) 독해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비언어적 지식으로써 독자의 읽기자료 이해에 기초가 되는 지식 또는 경험을 가리킨다.

www.kci.go.kr

표 2
독해력 관련요소 분석표

Harris	a. 정확하며 풍부한 어휘 습득 b. 사고단위(구, 문장, 단락) 이해하기 c. 주제 파악 d. 특정질문에 관한 해답 찾기 e. 필자의 구상 및 의도 파악 f. 독해 내용에 대한 평가 및 비판 g. 읽기속도와 이해도의 조정
Lamberg & Lamb	a. 낱말과 낱말 사이의 관계 이해 b. 지시사항의 이해 c. 참고자료의 활용 d. 주제 및 구조 파악 e. 추론하기 f. 평가적인 읽기
Jenkinson	a. 의미와 유관한 통사기능 숙지 b. 의미파악 c. 화제 문장 파악 d. 단락 구분 파악 e. 주제 파악 f. 사고의 전개순서 추적 및 예상 g. 글의 구조이해 h. 문맥에 의한 의미 파악 i. 내용의 요약 하기 j. 추론 또는 예견 능력
Mikulecky & Jeffries	a. 문맥에 의한 어휘 파악 b. 화제 및 주제 파악 c. 단락 구조 파악 d. 연결사의 기능 파악 e. 문화배경 지식의 배양 f. 모국어 독해력의 전이

2.6.2 속독 학습의 필요성과 방법의 예시

(1) 독자의 읽기목적과 읽기자료의 종류 및 난이도에 따라서 읽기속도를 융통성 있게 조절한다.

www.kci.go.kr

(2) 학습자의 독해능력에 관한 개인차를 고려하여 그 수준에 알맞게 연습시킨다.
(3) 인쇄된 글의 각행을 읽을 때 가급적 시야(eye span)를 넓혀 낱말군을 읽어나가는 연습을 실시한다.[5)]
(4) 학습자의 마음속에서 속독능력을 습득하려는 동기를 강화시켜 스스로 신속하게 읽으려는 심적 태도를 고취시킨다.
(5) 이해력을 유지하면서 속도에 비중을 두어 속독연습에 전력을 기울인다.
(6) 읽기속도 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1) 학습자의 현재 읽기속도 습관을 분석하여 결함을 시정해 준다.[6)]
  2) 규칙적으로 속독 연습시간을 갖는다.
  3) 학습자 자신의 읽기속도와 이해도에 관한 향상 추이를 도표화하여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며 성취동기를 강화시킨다.

2.6.3 문화배경 및 세상지식 넓히기 전략

독해력은 모국어 또는 외국어를 통한 언어지식 뿐만 아니라 독자의 문화적 소양, 교육정도, 개인적 세상경험 및 쓰여 진 글의 특정 화제에 관한 지식 등의 영향을 받는 복합적 과정의 총화로써 해석될 수 있다(Haarman, Leech, & Murray, 1988). 언어와 사고의 밀접한 관련성은 이미 보편화된 사실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언어기능에 속하는 독해과정에서 문화적 배경 또는 세상경험에서 얻어진 독자 자신의 고유한 '정보처리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소위 'schema'가 필연적으로 작용할 것이다(Garner, 1988: 3-10).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독해력 학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수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영어로 쓰인 글을 읽으면서 담화구조 분석을 통하여 사고 전개과정을 익힌다 (Kaplan, 1966; McWhorter, 2005).
(2) 모국어인 국어 독해력 학습방법인 전체적인 '글의 요지 파악', 및 '문단 나누기' 기법을 영어 독해력 학습에 적용한다.
(3) 학습자 자신이 선택한 책을 통한 읽기(pleasure reading) 방법을 활용하여 독

---

5) 개별단어 읽기가 아닌 사고단위(thought group)로 읽을 수 있는 지도를 필요로 한다 (Yorkey 1970:91).

6)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기본적인 언어 기능상의 결함을 발견하여 단계적으로 수정해 준다. 예를들면 'finger pointing', 'lip moving(vocalization)' 따위의 부정적 습관의 제거라든가 이해도에 연연하여 속도에 지장을 주는 심리작용에 관한 인식전환, 언어적 요소(어휘, 문법, 의미 영역 등)의 주요 장애요인 분석을 통한 부족한 언어요소의 보충학습 등을 뜻한다.

www.kci.go.kr

해력을 향상시킨다.[7]

(4) 매 수업시간 중 일정시간(5~10분 내외)을 배우지 않은 범위의 교재 내용 또는 학습자 자신이 선정한 책을 다독(extensive reading)형태로 읽어가는 동시에 방과 후 과제로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독서하는 습관을 기른다. 이러한 지속적인 묵독방법(SSR: Sustained Silent Reading)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Mikulecky, 1990: 18).

1) 독서 날짜, 읽은 페이지 수, 소요시간을 중심으로 한 독서기록을 누가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자료를 그래프로 만든다(Mikulecky, 1990: 59).
2) 교수자는 학습자의 SSR 과정에 관한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독해력 향상을 도모한다.
3) 일주일에 1회 정도 학습자와 만나서 독서한 분량 내용 등에 관하여 면담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킨다.

2.7 교수학습과 평가의 상호작용은 제대로 이루어지나?

2.7.1 언어평가의 문제점

Oller(1987: 42)는 언어평가의 문제점 내지 어려움을 미식축구에 관한 일화와 견주어 말하고 있다. 미식축구에서 거의 전설적인 유명한 코치인 Vince Lombardi는 수많은 우승을 거두었는데, 한 번은 챔피언 결정전 시합중 전반전이 끝나고 휴식시간이 되었을 때 라커룸에서 축구공을 손에 들고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축구공입니다.” 그의 팀은 후반전 경기에 들어가 시합을 승리로 이끌었다. 위의 일화에서 보면 “축구공”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선수들로 하여금 상대팀에게 태클을 시도하여 축구공을 잡으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미식축구에서의 이와 같은 일화는 매우 기본적인 사항을 중요시했다는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지난 사반세기의 언어평가에 관한 연구 및 실태에서도 미식축구의 일화에서처럼 기본적인 사항에 되돌아가 봄으로써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나 언어란 축구경기와는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Lombardi가 만일 언어 평가자였다면 그 또한 당혹스러운 상태에 직면하였을 것이다. 즉, 언어평가를 설명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그의 손에 무엇을

---

[7] 학습자 스스로가 선정함으로써 독해에 대한 동기가 강화 되고 배경지식의 도움을 받아 독해력 향상이 촉진된다(Mikulecky, 1990: 13-23).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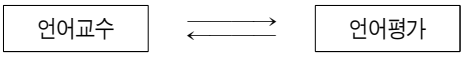
들고 입증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언어입니다.”라고 어떤 동작을 취하거나 어떤 물체를 가리킬 수 있을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언어와 언어능력은 매우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실체라는 점에 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언어평가에 관한 실체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2.7.2 교수학습과 평가

Lado(1970)는 언어학습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언어평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즉 학습자의 학습내용이 평가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Finocchiaro(1965)도 교수학습과 평가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평가의 제반 결과는 외국어 교육과정의 통합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교과과정은 타당성이 있고 신뢰로우며 이해 가능한 평가 프로그램이 제공해주는 발견과 결과의 입장에서 수정되고 아울러 교육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Brown(2004)에 의하면 훌륭한 교사란 언어학습의 전체적인 과정과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으로부터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고안하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훌륭한 가르침이란 그것이 추상적인 상태로 교사의 마음속에 내재한 상태이므로 주어진 교육상황에서 체계적인 평가절차에 의해서 경험적인 입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실에서 언어평가는 최소한 교수과정의 통합적인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교수사례와 궁극적으로 구분될 수 없는 다양한 목적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평가공식은 다음과 같은 통합적 공식으로 바뀌어 진다(Oller 1987: 44-45).



언어교수와 평가에 대한 이와 같은 실제적인 의미의 차원에서 볼 때 모든 평가는 보통 성인 모국어 화자의 수준이나 이에 가까운 목표언어로의 바람직한 의사소통능력 배양이라는 교수목표를 향한 언어평가 활동이 된다. 즉 평가는 단순한 교수과정의 일부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본질에 속한다. 바꾸어 말하면 가르치는 것은 교수과정 그 자체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평가과정인 셈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외국어교육에서 평가는 교수학습의 핵심적인 요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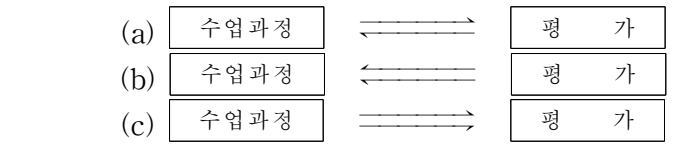
www.kci.go.kr

되어 더 이상 교수학습과 평가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 즉 훌륭한 교수와 평가는 불가분의 관계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2.7.3 평가와 수업과정의 환류작용 효과

평가가 교수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을 '환류작용(backwash)'이라고 칭하는데, 바람직한 환류작용은 평가와 교수과정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쳐서 이상적인 형태를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그림 4(a) 참조]. 그러나 교수학습의 본질에서 벗어난 평가는 평가와 교수에 있어서 일방적인 관계를 지니게 되어, 평가가 교수과정에 지나친 일방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림 4b 참조) 혹은 교수과정만이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림 4c 참조) 가 생길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이러한 형태들은 우리 한국의 대입 수능 영어시험과 중·고교 영어 교사들에 의해서 출제되는 성취도평가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수과정과 평가 상의 목표와 그 목표를 반영한 내용은 이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림 4a)와 같이 유기적인 상호관련성을 지녀야 효과적인 외국어 교수학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환류작용의 유형[8)]



3. 결론

지금까지 한국 영어 교육의 현실적 문제점 분석과 필자 나름의 발전적 대안 모색 차원에서 앞서 논의했던 내용을 간추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영어 교육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과

8) 그림 4의 (a)와 (b)유형은 Saleemi(1988: 3)가 제시한 것이고 (c)유형은 본 연구자에 의하여 제시된 것임.

www.kci.go.kr

예산 지원을 토대로 자질 있는 교사의 배치와 충원, 수업 시수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중등 영어 교과서를 학년별로 난이도를 두어 평균적인 학력 수준에 맞추어 2~3종의 수준별 교과서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 교과서가 교수 학습 자료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입 수능 영어시험에서 듣기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높여 출제함으로써 중등학교 영어 교육의 구어 기능 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을 유도하고 동시에 독해력 지문의 길이를 조정함으로써 복합적이고 추론적인 사고력 측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넷째, 공식연수와 자율연수 과정의 통합적 효과를 활성화시켜 영어 교사의 자질 함양을 고취시키고 그 결과로 교실 수업의 의사소통 중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한다.

다섯째, 이론과 실제가 제대로 연계되어 학문 종사자와 현장교사 그리고 장학담당자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영어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EFL 상황의 한국에서 실제상으로 가장 중요한 언어 사용기능에 해당하는 독해력 교육에서 속독 학습과 다독, 자율독서(pleasure reading)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일곱째, 평가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교수학습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평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과제들은 필자가 지난 20 여 년 동안 영어교육 연구자, 교육자로서 종사해오면서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 영어교육의 현실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논의해봄과 동시에 발전적 대안을 제안해본 것이다. 영어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검토와 의견 교환을 적극 기대하는 바이다. 좀 더 나은 영어학습 그리고 영어교육이 되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고 협조하면서 영어교육의 넓은 광장에서 각자가 맡은바 소임을 잘 해내자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싶다.

참고문헌

교육부.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외국어(영어)*.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임병빈. (1999). *영어 교수학습 평가*. 서울: 한국문화사.

임병빈. (2001). *영어교실 학습지도 전략*. 대전: 도서출판 보성.

임병빈, 연준흠, 장경숙, 안희성. (2003). *영어교사연수와 현장연구방법*. 서울: 신아사.

www.kci.go.kr

한국학술진흥재단. (1994). *학회총람*.

Augustine, Saint. (1949). *The confessions of Saint Augustine*. (E.B. Pusey, Tran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Brown, H. D. (2004). *Language assessment: Principles and classroom practices*. NY: Longman.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leaching*(4th ed.). NY: Longman.

Cullen, R. (1991). Video in teacher training: The use of local materials. *English Language Teaching. 45*(1), 33-42.

Finocchiaro, M. (1965).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From theory to practice*. CA: Regents Publishing Company, Inc.

Fitzgerald, J. A. & Fitzgerald, P. G. (1967). *Fundamentals of reading instruction*. Wis: The Bruce Publishing Company.

Garner, R. (1988). *Metacognit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poration.

Haarman, L., Leech,, P., & Murray, J. (1988). *Reading skills for the social scien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arris, A., J. (1962). *Effective teaching of reading*.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Howatt, A. P. R. (1984). *A history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Im, Byung-Bin. (2004). *English language teaching: New dimensions*. Kongju: Kongju National University Press.

Jenkinson, M. D. (1973). Ways of teaching. In R. C. Steiger (Ed.), *The teaching of reading*. Paris: UNESCO.

Kaplan, R. B. (1996). Cultural thought patterns in intercultural education. *Language Learning. 16*(2), 1-20.

Lado, R. (1970). *Language testing: The construction and use of foreign language tests*. London: Longman Group Ltd.

Lamberg, W. J. & Lamb. C. E. (1980). *Reading instruction in the content area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Larsen-Freeman, D. (1987). Twenty-five years of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English Teaching Forum, 25*(4), 2-10.

McWhorter, K. T. (2005). *Active reading skills*. New York: Pearson Longman.

Mikulecky, B. S. (1990). *A short course in teaching reading skills*. New York: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Mikulecky, B. S. & Jeffries, L. (1986). *Reading power*. New York: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Milk, R. D. (1990). Preparing ESL and bilingual teachers for changing roles. *TESOL*

www.kci.go.kr

Quarterly, 24(3), 407-426.
Nunan, D. (1989). A client-centered approach to teacher development. *English Language Teaching. 43*(2), 111-118.
Oller, J. W. Jr. (1987). Practical ideas for language teachers from a quarter century of language testing. *English Teaching Forum, 25*(4), 42-46.
Perfetti, C. A. (1985). *Reading abi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aleemi. A. P. (1988). Language testing: Some fundamental aspects. *English Teaching Forum, 26*(1), 2-6.
Slobin, D. I. (1979). *Psycholinguistics* (2nd ed.). Glenview, Ill.: Scott, Foreman and Company.
Yorkey, R. C. (1970). *Study skills for students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임병빈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041)850-8189
rainbow@kongju.ac.kr

논문접수일자: 2007. 2. 27.
게재확정일자: 2007. 3. 19.

www.kci.go.kr